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라’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연말이고 하니 오늘은 그리 무겁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싶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이야기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가지 신드롬을 떠올렸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프레디 머큐리란 이름의 가수도 알지 못했다. 그대 처음 제목만 들었을 땐 무슨 ‘클래식 음악 영화’이겠거니 짐작했던 거다. 이유는 단순했으니 ‘랩소디’란 말이 들어가는 리스트의 피아노곡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를 듣고 있는 중이다.)

랩소디란 단어는 클래식 애호가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예전 음악 시간이나 처음

접했을 가능성이 많다. 한데 이게 참 어려운 단어여서 광시곡(狂詩曲)이란 설명을 들어도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한자 좀 안다 해서 자칫 ‘미친(狂) 시(詩)의 노래(曲)’쯤으로 번역했다가서는 더욱 의미의 혼란만 겪게 될 뿐이다. 영화를 본 후 여기저기 뒤적여다가, 이 광시곡이란 단어가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자말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일본에서는 ‘격식이 나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속어 등을 섞은 천박한 시’를 ‘광시(狂詩)라 한다는 것이다.

왜 ‘보헤미안 랩소디’인가

원래 랩소디는 그리스 서사시의 한 형태로 기존의 형식에 물들지 않고 미친 듯이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노래다. 우리 사전에서는 랩소디를 ‘관능적이면서 내용이나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상적인 기악곡’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시 ‘광시곡’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랩소디와 같은 말로 돼 있다. 결국 광시곡·랩소디는 ‘자유로운 형식의 노래’라 할 수 있겠다.

프레디가 노래 제목에 ‘랩소디’를 사용한 것도 바로 이 ‘자유’에 방점이 찍혀 있

지 않을까. 보헤미안이란 단어 또한 마찬가지로. 보헤미안은 ‘보헤미아 사람’이란 뜻이고, 보헤미아는 체코 등의 동유럽을 의미한다. 보헤미아 지방에 집시가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15세기경 프랑수아는 집시를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사회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나 지식인들을 보헤미안이라 일컫게 됐다. 때로 방랑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보헤미안은 집시와도 통하는 말이다.

집시들의 최초 출신지는 보통 인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처음 집시들이 이집트에서 온 것으로 잘못 알고 이집시(Egyptian, 이집트 사람)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 말의 머리와 꼬리가 잘려 나가면서 집시(gipsy)가 됐다. 어찌 됐든 유럽인들은 보헤미안이나 집시를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아서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했던 모양이다. (글을 쓰는데 열중하다 보니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음악이 이미 멎은 걸 뒤늦게 깨닫고 황급히 ‘보헤미안 랩소디’ 동영상을 찾아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영화를 본 것은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sing-along)관에서

였다. 보고 나니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노래 가사에 뜬금없이 나오는 ‘갈릴레오’나 ‘피가로’는 무슨 뜻일까?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또 여기저기 뒤적여 보니 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었다. 우선 이 같은 말들이 그룹 ‘퀸’ (Queen)의 멤버들을 지칭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성의 견이다. 실제로 천체물리학 박사이기도 했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를 가리켜 천체물리학자 갈릴레오라 했다는 것이다. 희곡 ‘세빌리아의 이발사’ 주인공 피가로는 드림의 로저테일러를 지칭한다. 늘 주변에 여자 소동이 끊이지 않지만 험명하기 때문이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피가로는 중세 귀족을 신랄하게 비판한 인물이었다는 점과 연관시켜서 기존의 양식을 거부했던 프레디 머큐리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천동설이 대세였던 시절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가사에 등장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한 해석에 이제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노래 가사는 여전히 난해하다. 생전에 프레디는 가사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 각자에게 해석을 맡긴다고 말했다는데, 일단 가장 유명한 해석 중 하나는 그가 곡을 쓴 시기가 메리 오스틴이란 여성과 헤어진 직후임을 주목한다. 동성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발견하고 메리와 헤어진 그가 이에 대한 슬픔과 혼란을 가사에 담았다는 주장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가사의 화자는 프레디 본인, 엄마는 메리, 그가 죽었다는 남자는 이성애자로서 메리를 사랑했던 과거의 자신이 된다. 기타리스트 신대철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이 가사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남자를 죽였다’ 즉 ‘내 안에 있는 남자를 죽였다’는 뜻일 것이다.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자 했던 것 같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훔치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엇그제 관객 800만 명을 돌파했다. 1970-80년대를 휩쓴 록밴드 ‘퀸’을 소재로 한 영화의 주요 관객은 예상과 달리 젊은이들이 많았다. 7080세대가 아니라 2030 젊은 세대가 이처럼 영화에 푹 빠져든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속 명대사이자 실제 프레디 머큐리가 인터뷰에서도 밝혔던, ‘사회 부적응자가 부적응자들을 위해 노래한다’는 그의 철학이 관객의 심장을 관통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마이너가 마이너를 위해 활동한다’는 ‘퀸’의 철학에 젊은 이들이 열렬히 호응한 것이다.

근래에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단어로 ‘인싸’(insider)와 ‘아웃사더’(outsider)가 있다. 인싸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웃사더는 인종의 ‘무지’(페배자)다. 문제는 본인을 아웃사더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지를 위해 노래한다’는 퀸 음악의 주제 의식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위로’의 문화 코드와 맞아떨어진 것 아닐까.

무대에서는 ‘핵인싸’였지만 일상에서는 늘 위로운 ‘아웃사더’였던 프레디. 그는 산사태에 묻힌 듯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라’(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며 젊은이들을 위로한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는 그의 마지막 노래처럼 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노래에서 적잖은 위안을 받는다.

전남·부산·경남 남해안 상생발전 업무 협약

환태평양 경제권 중심 도약 기대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는 20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사·도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남해안이 앞으로 다가올 환태평양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남해안권 공동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5월 3개 시·도지사가 지방선거 후보 시절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남해안 광역경제벨트 구축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반영 공동협력 경전선 고속화 사업 조속한 완료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공동노력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건설로 새로운 관광콘텐츠 창출이 담겼다. 조선·해양 산업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확보, 북방 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투자 및 협력,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했다. 남해안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르면 내년에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두번째부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20일 오전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린 ‘남해안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함께 경전선 고속화사업 조속 완료,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건설, 조선·해양 산업 협력제고와 경쟁력 확보 등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 제공>

해 국가계획과 국비 반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남해안 3개 시·도가 남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발굴해 대정부 건의에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

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남해안권이 새로운 경제협력벨트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경남도와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내년부터 상·하반기 정기회를 개최하고,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임시회를 열어 대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제1회 정기회는 전남

에서 열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현실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남해안권이 새로운 경제협력벨트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곡성 작은 영화관 ‘문화사랑방’ 특특

개관 1년만에 4만명 돌파... 27일 1주년 축하 이벤트

지난해 12월 22일 개관한 곡성 작은 영화관 관객이 지난 15일 4만명을 돌파했다.

곡성 인구가 3만명임을 고려하면 2개 관 총 95석 규모의 곡성 작은 영화관에 주민 모두가 1회 이상 방문한 셈이다.

이는 당초 연간 예상 인원 3만 5000여 명보다 14%가량 많은 기록이다.

곡성 작은 영화관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관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며 농촌 마을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곡성군은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최신 개봉작을 더 저렴한 비용(2D 영화 기준 1인 6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영화관 운영을 맡은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관 1년 이벤트로 오는 27일 1주년 축하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당일 관람객 전원에게 팝콘을 증정하고, 일부 팝콘 속에는 영화관람권을 숨겨 놓을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투자자 모집★

- 3억원 이상
 - 경매 입찰/낙찰 물건
 - 최하 연15% 수익 보장
- (주)오천경매.010-3605-5000

단독

※전남,북지역/지분환영※
바로잡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2018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당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지원회 광주전남지회

함께하면 돈돈'육아 성공비법

직장·치문화 제로법
직장인 & 대안직업은 돈이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기업에서 일하는 엄마되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힘써 격려 응원하기!

육아하수 주의법
서툰 육아에 후회 대신 힘써서 따뜻한 맘으로 건네기!

직장 가족 이웃

돈돈육아 동참법
공공이 육아, 아이 양육 지원, 나무타기 같은 것부터 실천하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천
- 화순읍 이십곡리 대지 860㎡ 광주에서 10분 2억8천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함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계획관리지역 임·전 5940㎡ 신고 3500 매도3천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7억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땅 3044㎡ 도로있음 투자에 양호 3억4천
- 남평읍 상곡리 땅 6608㎡ 주택있음 전원생활 최적 1억5천
- 무안군 삼함읍 왕산리 4861㎡ 참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례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조정가능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칠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장성읍 의원건물 대지 340㎡ 건물 489㎡ 은행2억 임대중임 3억5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물 989㎡ 객실 27호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대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물 279㎡ 4억5천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철점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읍 새모델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감점 30억 매도 2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